



📢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섬에서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토지'를 선물로 받을 뻘 했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부모님께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 중의 일부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매우 아쉽지만 (?) 그들의 마음만 받기로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가정의 훈훈한 사랑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해변 교회 교인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장례 문화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죽음' 자체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 드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듣는 등 장례가 평범한 일상 생활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예정한 장례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중에 처음 뵙는 분들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이들 부부는 저희가 거주하는 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작은 섬의 '텔몬티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고, 이들의 딸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저희가 마치 한국의 사돈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종일관 정답게 대해 주시고, 나중에는 섬에 위치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와 사택에 초대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만남이 있는 후에 목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중에 몇번이나 사택을 방문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침내 버스와 배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갈아 타며 바다를 건너 목사님이 계시는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오래되고 초라한 사택이지만, 거실 벽에는 한국으로 시집간 딸의 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보낸 후 딸을 얼마나 그리워 하는 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다고, 딸을 통해서 들은 한국의 풍습을 따라 마치 한국 사위가 온 것처럼 마당에서 키워던 닭을 잡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분에 넘치도록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가정의 배경과 한국으로 시집 간 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그렇게 가볍게 식사만 하고 돌아 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는 30여년전 결혼할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서는 매우 드물게 본인은 자식을 낳지 않고, 현지의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를 입양해서 장성하도록 잘 키운 분입니다. 그리고 약 5년전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장성한 딸을 이곳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받으며 한국 농촌의 청년과 혼인을 하게 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통해서 한국의 시집 식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비록 농촌이지만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두 남매를 낳았고, 약 3년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딸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이에 따라 우울증과 향수병까지 겹쳐서 거의 매일 전화를 하며 집으로 오고 싶다고 우는 까닭에 상황을 자세히 모르는 목사님 부부는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까닭에 딸의 하소연만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도하는 중에 장례식에서 저희를 만난 것입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중에 사모님은 급한 마음에 한국으로 바로 전화를 걸어 딸을 바꾸어 줍니다. 목사님의 딸은 전화 통화엔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가슴이 많이 아픡니다", "수술하기 싫습니다.", "남편이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이 교회에는 나가지만 예배 중에는 잠자고, 술과 담배를 합니다." 일방적인 하소연을 들은 다음에야 딸의 남편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딸을 시집 보낸 장인으로서 사위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을 차례입니다. 아내의 병명은 '심장 판막증'으로 빠른



'텔몬티 교회' 목사님 가족과 함께

시일 내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내는 수술이 잘못되면 자녀들과 고향의 부모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술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 간다고 하여 참 난처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직 질환 초기 이고, 젊기 때문에 수술도 매우 간단하여서, 완치되는대로 고향에도 보내어 부모님도 만나 뵙도록 하고, 본인도 이곳에 방문할 예정이라하며 사위가 도리어 저에게 아내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 합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목사님 부부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수술을 받도록 딸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목사님 내외는 만약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살았다면, 열악한 환경과 비용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했을 터인데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감사해 하십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거의 한달 이상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사위로부터 상황을 듣고 또 다시 이곳 목사님께 다시 연락을 하고, 목사님은 또다시 딸에게 연락을 하여 설득하는 중에 마침내 작년 12월 초, 딸의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딸은 완치가 되어 3개월 예정으로 그렇게도 오고 싶어하던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침내 1월 중순에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그동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온 딸 같기도하고, 며느리 같기도한 목사님의 건강한 딸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전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 14:26)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교도소를 방문 할 때마다 150여명의 수감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쇠 창살 틈으로 저희들을 반깁니다. 이들이 예배를 기다렸다고 생각되기 보다는 저희가 들고 오는 '꾸러미'에 더 관심이 많음을 잘 압니다. 저희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저히 빈 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예배 이후에 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비누, 치약, 세제 등과 같은 물품을 각 방에 넣어 주기 위하여 준비해 갑니다. 또한 옷과 슬리퍼등도 준비해 갑니다. 마치 밀 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왔는데 이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50여명의 재소자들의 필요를 저희들만의 힘으로 넉넉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해 간 물품을 전달해 주면서도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이들이 먹는 식사외에는 그 어느 다른 생필품도 별도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마따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많은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지만, 그중에서도 교도소 내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하여 수감자들이 여러 질병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감자들이 어떠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배 이후에 저들과 악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병명을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피부병이 매우 심한 나이 많은 한 수감자는 제가 가까이 가면 손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저하는 제 마음을 미리 알아 차린 듯 죄송하게도 먼저 제 시선을 피해 버립니다.

생필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수감자들에게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이란 전혀 생각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고통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재소자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어떤 약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교도소 의료 담당자를 만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사용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다양한 피부병 관련 약품들을 우선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피부병 약품을 준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전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료 담당자가 아닌 사람에게 약품이 전달 되어 만에 하나 오용이 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피부병 약품을 확보하고도 교도소에 전달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여러 사람의 수고를 통해 마침내 교도소 담당 간호원에게 관련 약품들을 전해 줄 수 있게 되




약품을 분류하는 마따 교도소 간호원

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훌가분해 진 것 같습니다. 그 누구 보다도 피부병으로 인하여 도리어 저를 피했던 나이 많은 그 재소자가 이 약품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 해 질 것 같아서 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재소자는 지난 주일에 이미 돌아 가셨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이 피부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혈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 3:1-3)**

 이곳에서 벌써 세번째 지나는 1월이지만, 금년 1월은 그 여느 때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태양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매일 밤, 낮으로 비가 내려서, 홍수 및 각종 물 피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사역을 하는 마띠 지역에도 산이 무너져 내려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는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띠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여 주기로 예정한 날도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긴장 가운데 새벽 빗 길을 아슬 아슬하게 지나서 온통 흙탕 물 구덩이와 진흙 발인 마띠 고등학교에 어렵게 도착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비로 인하여 전교생 350여명 중에 단지 약 150여명의 학생만이 등교를 하여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영화 상영에 대하여 약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한 까닭인지, 학교에 도착 하자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영화 상영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간 장비를 교실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젝터를 사용하기 위한 어두운 조명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교실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교실 벽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교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게 사방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띠 영화관

오랜 전부터 영화를 보여 줄 계획을 했었으나,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두운 공간을 확보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임시 영화관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목수가 교실 사이를 구분했던 판자를 뜯어내어 화면이 위치할 곳의 양 면을 임시로 막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하여 학생과 선생님이 총 동원 되어 의자를 한 곳으로 옮기고 자리 배치를 다시합니다. 드디어 영화관의 모양을 가까스로 갖추고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침내 모두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가족의 의미'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표현한 현지 영화입니다. 두 시간 동안 아무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모두들 영화 내용과 하나가 되어 웃고, 아쉬어 하고, 감탄하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강력히 주의(?)를 주었던, 선생님을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흘러 내리는 눈물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모두들 영화를 통하여 많은 감동을 받는 모습이 역력하였고, 또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 보게한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오는 중에도 저희가 준비한 모든 일정을 기대 이상으로 잘 마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도 같은 영화를 다음 예배 시간에도 한 번 더 상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한 약 200여명의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같은 영화를 꼭 보여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마띠 고등학교는 작년에 교실 바닥과 임시 격실을 만들어 놓고 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더 이상 학교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도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 벽이나 문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책상도 계속 도난을 당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 진다고 하는 학교의 모습을 갖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

족함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는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 학교에 있는 350여명의 학생과 선생님들께 복음을 꾸준히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주님을 모르는 신입생이 새롭게 들어오고, 이 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졸업생이 배출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생각만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비록 마띠 고등 학교가 부족함 때문에 비록 저희에게 문을 열고 복음 사역을 허락 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 가운데 이를 채우시고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교실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단 9:18)



기도 요청

1. 마띠 고등학교에 New Spirit 장학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2. 교실 벽 공사가 시급합니다. 6개의 교실 벽, 창, 문등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3. 학교 내에 성경을 같이 공부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 (Chapel)을 건축하도록
4. 마띠 교도소의 150여명 수감자들의 청결을 위한 생필품 (비누, 치약, 세제등)을 계속 공급 할 수 있도록
5. 마띠 지역 사역을 위한 이동 중의 안전과 차량 구입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